

'고승비문 조선편' 처음 나왔다

보각국사-무학왕사-사명대사 비문 등 23기 담아 가산불교문화원 '한국불교 금석문 시리즈' 완결



손재현무용단 창단기념 무용극 '넋의 소리'가 3·4일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했다. 사진은 춤을 완성하려는 주물공들의 역동적인 장면.

불교무용극 '넋의 소리' 에밀레종의 불심 몸짓언어 형상화

손재현 불교무용단 창단공연 갈채
6월30일부터 네덜란드 등 공연

창작 발레와 연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불교 무용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불교포교 전문 무용단을 표방한 '손재현 무용단'이 창단을 기념해 3·4일 당일간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한 '넋의 소리'가 바로 그것. 김홍우교수(동국대 연영과)의 원작에 신영섭교수(동국대 연영과)와 손재현교수(동국대 체육학과)가 각각 연출과 안무를 맡은 '넋의 소리'는 불교사상적대량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요 과정에 녹아 있는 불심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 작품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불교사상적 대량 신종을 만들어 낸 신라인들의 불심과 장인 정신, 그 속에 서려 있는 한과 넋 등을 현대 창작 발레로 표현했다. 정아의 인신공양으로 춤을 완성하려는 주물공들의 역동적이고 빠른 몸놀림이 돋보인 이번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종물사에 딸린 정아 어머니의 불심과 모성에 사이의 갈등을 애절한 몸짓으로 형상화한 장면. 이 대목에선 청중들도 함께 괴로워 하는 듯 객석에선 적막이 감돌았다.

이번 공연에는 교사와 무용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20명의 '손재현 무용단' 단원외에 탈춤 동아리 회원, 연극영화과 학생 등 총 30여명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손교수가 이번 작품에 대사가 있는 연극을 삽입한 것은 신체언어인 무용만으로는 관객들이 기획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교수는 또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무용극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공연후 찬반의 양극화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재현무용단'은 이번 창단 공연에 이어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넋의 소리'를 부분 각색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학계 최초로 고승비문을 교감역주해 관심을 끌었던 한국불교금석문시리즈의 완결편인 <조선편 I>이 나왔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 등 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찾는 책이 된 금석문시리즈 중에 이번에 발간한 조선편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조선시대의 고승비문을 정리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금석문시리즈 <조선편 I>의 출간은 참례되어 있던 조선조 불교연구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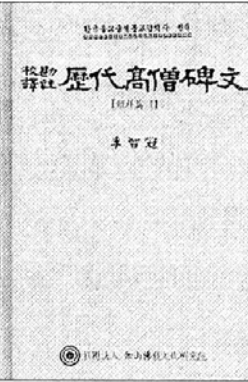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펴낸 <조선편 I>에는 청통사 보각국사 환암 정혜원 응탑비문, 회암사 무학왕사 묘엄존자탑비문, 해인사 사명대사석탑비문, 백화암 청허당 휴정 대사비문, 표충사 서산대사비문, 보현사 편암당 언기대사비문 등 조선조를 대표하는 고승들의 비문 23기가 실려있다. 연구원은 자료화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조의 고승비문을 문헌 자료는 물론 직접 비문을 찾아 탁본까지 하면서 수집해왔다. 이에 따르면 비문을 제외한 조선시대 고승비문은 200여기에 달한다. 고려시

대 비문과 비교해 볼 때 조선조의 고승비문은 크거나 화려함은 물론 비문의 내용이나 문장 역시 유생들이 몰래 작성하는 등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관스님은 조선편시리즈의 나머지 편들을 내기 이전에 조선시대 고승비문 200여기의 전문을 전부 모아 <조선시대 스님비문> 총합을 만들고 나서 2~3년 간에 걸쳐 교감역주 작업을 추진해 조선편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6일로 개원 8주년을 맞는 가산불교 연구원이 93년부터 발간해온 한국불교금석문시리즈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에는 신라편-11기, 고려편 I-15기, 고려편 II-17기, 고려편 III-26기, 고려편 IV-25기, 조선편 I-23기 등 총 117기의 고승비문 원문과 해설 등이 실려있다.

<조선편 I>과 함께 최희익 연구위원(가산불교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의



유교인 '조선시대 승려 비문 및 행장 일람'이 실린 <가산학보> 7집도 출간됐다.

개원후 8년간 연구원이 주력해온 불교대사님 편찬, 학술연구, 교육, 출판, 교화의 5대 사업 가운데 금석문시리즈는 학술연구 출판 분야의 성과물이다. "한국불교사상 체계화 정지작업으로 역대고승비문 자료

정리를 마친 것이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라는 지관스님은 "상장의 본격연찬도량"으로 나가기 위해 20여명 안팎인 연구자들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양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불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포럼과 국학세미나,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도 주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직지사 성보박물관 재개관

수장고 보관유물 130여점 전시실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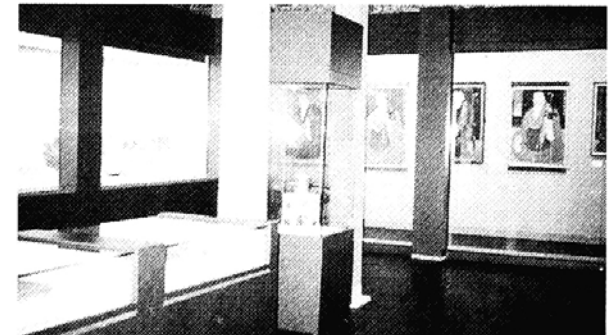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성보박물관(관장 홍진스님)을 재개관했다. 직지사는 96년에 박물관을 개관했지만, 전시실과 보존실을 개설하지 않아 유물 대부분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지사는 지난 1년여동안 특수조명과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1백여평 규모의 전시실을 신축하는 등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관 기념전'을 개최할 것.

'박물관 재개관기념전'에는 국보 208호인 통일신라시대 금동 육각사리합과 보물인 신라말기의 금

동사리합, 석조 약사여래불상, 예념미타 도량창법, 경북도 유형문화재인 석조나한상 등을 비롯 130여점이 전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금동 육각사리합. 74년 선산도리사에서 발굴돼 국보로 지정된 이 사리합은 대개 4각 형태의 사리합과 달리 6각이며, 각면에는 6명의 보살, 사천왕상 등이 정교하게 선조되어 있어 미술사상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

또 금속·석조예술을 가늠할 수 있는 상원사·실상사 동종의 비천상과 신주 남산 석각 천인상 등의



◇지난달 22일 재개관한 직지사 성보박물관 전시실 전경.

탑본 코너와 지광국사현묘탑·난공대사백회서운탑·남해화상백회보광탑 등의 비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탑본 코너도 마련됐다. 이상구 학예연구실장은 "직지사

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보는 대부분 석탑, 비석 등 석조물"이라며 "이같은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금석문' 전문박물관으로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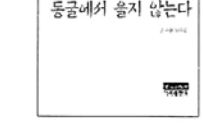
맹란자씨등 수필가 9명 중국문학기행첩 출간

허세욱, 맹란자씨 등 9인의 수필가가 중국문학기행을 하고 쓴 기행첩이 나왔다. 문학동인 흥인회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중국 상해, 남경, 황산 등 강남지역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쓴 <서호로 가자사(생명의나무)>가 바로 그것. 기행은 120년전 서구의 문명이 들어와 동방의 진주로 개 발됐던 상해의 외탄과 함께 80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로 한민족 수난의 현장인 상해에서 부터 시작된다.

중국 최고의 고전소설 <홍루몽>의 요람인 우뚝타공원, 중국 최고의 화선지 산지 선주,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향했다는 소재를 비롯 송나라 시인 임포의 방학정 등이 유려한 필치로 그려졌다. 전문가의 사진솜씨가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숙현씨 15년만에 펴낸 희곡집 '새는 동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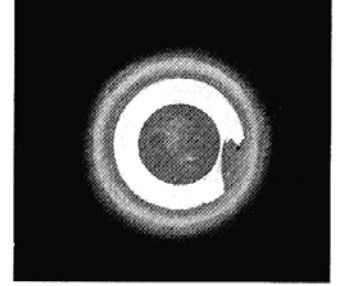
김숙현씨가 15년만에 희곡집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부산일보사기획출판국)를 펴냈다. 이 희곡집에는 88년 제33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젊은왕자의 무덤'을 비롯 11편의 희곡들이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환하여 환하여'는 원효대사의 득도와 파계를 뛰어넘어 해탈과정을 극화한 작품이다. '나팔소리는 계속되고'와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는 정치인을 가장으로 둔 가정, 그 권세의 허상 아래 희생되는 두 여인을 모티브로 한 연작 형식이다. '나팔소리는...'는 정치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딸이 직접적인 희생물이라면 '새는 동굴에서...'는 헌신적인 내조와 자아실현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내가 희생자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nia.com)

문화 단신

장성진 '내면의 풍경'

무명(無名)한 생명이 사는, 불가사의와 침묵의 세계를 상상케 하는 장성진 회화전이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장성진작 '내면의 풍경'.

'내면의 풍경-내 허무속에서 자라는 바람'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묘사보다는 감정의 이입을 강조한 선과 면으로 명상이미지를 담은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박주화 '임지로 가는 마음'

임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신을 서정시를 읽는 것처럼 포근하고 아름답게 형상화한 박주화의 '임지로 가는 마음'전이 4~15일 부산 영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가와 차밭과 하나가 된 초의선사의 혼이 남아있는 대흥사 일지암 등 전국 30곳의 유명암자들이 시화처럼 화폭에 펼쳐져 있다.

김광부교수 '인도 사진전'

인도의 자연과 참영혼을 담은 김광부교수(서울예전 사진과)의 사진전 '영원의 세계, 인도'가 9~23일 서울 중구 코엑스포도심에서 열린다. 김교수는 9일 사진전 오프닝 행사로 사진집 <영원의 세계, 인도> 출판기념회도 마련한다. 사진집에는 작품사진 172점이 수록됐다. (02)708-5633

김한용 사진집 '석굴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보수가기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집 <석굴암>(논빛출판사)이 출간됐다. 석굴암을 개·보수가기 전인 1953년에 촬영된 사진 45점이 수록된 이 사진집은 원로 사진작가 김한용씨가 발간 한 것. 석굴암 전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흑백 사진에서 본존불과 사대천왕 등이 섬세한 명암의 대조를 통해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김창배 선화집 '한국의 달마'

선종의 초조 달마선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한국의 달마>(이화문화출판사)가 발간됐다. 독특한 필치로 그린 달마도로 명성이 높은 김창배 화백의 작품 180여점이 수록된 이 책에는 서역인의 모습이 아닌 친근한 한국적 달마의 수행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또 김화백은 우리의 정서와 맞는 '한국의 달마도법'도 설명해 놓았다.

작명 韓國人의 作名寶鑑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 ★이름이 사람에게 미치는 5대 원칙의 진수 수록
- ★작명방법의 원리를 배우고 싶은 분, 철학과 운영하시는 분, 스님, 일반인, 누구나 필요한 책
- ★초보자도 각 성씨별로 작명의 5대 원칙에 맞추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금능 선생이 35년 연구한 비법(수리 배설 등식)을 수록 공개!
- ★저자에게 작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작명안내권 증정
- ★불자 신도 작명 우대

·저자: 金農 김관희 ·책값 10,000원(송달료 포함)

※은세 감평 ※동양철학 개인지도

等身 金串禧 (김환희) 이야기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인생을 보다 멋있게 잘 살아가 수 있는 비법이야기!

- 심신건강 비법 ○ 공부 승진 입학 비법
- 기 흡수 비법 ○ 사업 성공 비법
-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스트레스 해소 비법
- 한을 푸는 비법 ○ 후회 없이 사는 비법
- 현세와 내세를 다 잘살 수 있는 비법 수록

·저자: 金農 김관희 ·책값 10,000원(송달료 포함)

판매처
(주)금농기획 0502)755-7700, 753-8482
053)753-8482 팩스 053)815-6729

국민은행 618-24-0095-319 예금주: 김관희
농협 720-02-217381

송일식초

★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송일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송일만을 전통종기향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 제품명: 송일양조식초 ○영업허가: 여주제2호
- 원료명: 송일 100% ○중산도: 14° ○용량: 1.5L

▶온라인: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상경

※제조원: 송일식품
※분 의: 송일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보덕선원

하안거 선방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여기 서울에 초현대식으로 육백평 큰 시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남향집 선원입니다. 저는 40년간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수도의 기본인 원음산림선방으로 원을 세우고 창건했습니다. 저는 대중과 같이 정진하고 탐마하고 영원한 수도장으로 느낌이 오는 분위기로 상좌가 아닌 수도인에게 물려 줄 것입니다.

인연을 논하지 말고 오십시오. 같이 정진합시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 02)914-4235

삼각산 보덕선원

원장 오본 합장

청림 산악회 결성

에 대하여... (가칭)

회원님 여러분 법체는 건안 하십니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순수한 모임을 갖고자 몇몇회원 스님들의 제의로 (가칭)청림 산악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좋아 산으로 출가한 마음으로 등산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들의 얼굴을 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날짜: 1999년 6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통도사 입구 알프스 관광호텔 커피숍 T. 0523)382-6161
- 회비: 3만원
- 차림: 간단한 등산차림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청림 산악회 결성 발기인 공동 준비위원 (명칭생략)

영하 상덕 현대 대우 도각 무애
법민 관우 세연 각현 산재 동하 이상